	보도자료	배포일자	11.6..(금)	매수	2매
		보도일시	배포 후 즉시		
	공공의료본부 지역책임의료팀	실 장	한 은 주	☎	054-530-3042
		담 당	박 경 자		054-530-3041

상주권 의료 · 보건 · 복지기관, 지역돌봄 협력체계 구축위해 한자리에



사진설명: 11월5일(금) 상주시립도서관(3층 상상홀) 참석자 단체 사진

◆ 상주적십자병원, 「2026년 상주권 돌봄을 잇다」 워크숍 개최

- 35개 기관, 53명 참석 지역사회 돌봄 자원 공유 및 기관 간 협력 방안 모색

□ 상주적십자병원(병원장 김혁수)은 11월 5일(목) 오후 2시 상주적십자병원에서 「2026년 상주권 돌봄을 잇다 워크숍」을 개최했다.

□ 이번 워크숍은 상주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지역책임의료팀이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. 지역 내 공공·민간 의료, 보건, 복지 자원을 파악하고 기관 간 자원 현황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민과 지역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.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적절한 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.

□ 이날 행사에는 김혁수 상주적십자병원장(공공의료본부장)을 비롯해 공공의료 관계자, 상주권 보건·복지·돌봄 관계자 및 지역사회 연계기관 등 총 35개 기관에서 53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협력의 뜻을 모았다.

□ 워크숍은 ▲병원에서 지역사회로, '돌봄을 잇다'(상주적십자병원 지역책임의료팀) ▲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재와 협력 방향(상주시청 통합돌봄 TF팀) ▲지역에서 환자를 만나다, 찾아가는 재택의료(마을숲의원) 등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.

□ 이어 의료·보건·복지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참여형 토의가 진행됐다. 참석자들은 각 기관이 현재 지역사회에서 잘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사업을 공유하고, 기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와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.

□ 특히 각 기관의 강점과 자원을 서로 이해하고, 기관별 역할과 기능을 연결하는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,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.

□ 김혁수 상주적십자병원장(공공의료본부장)은 “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할 수 없으며, 의료·보건·복지 기관이 서로의 역할과 자원을 이해하고 협력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“며 “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지역 내 기관 간 소통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,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“고 밝혔다.

□ 앞으로도 상주적십자병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,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